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번호					3				제 () 선택
----	--	------	--	--	--	--	---	--	--	--	----------

1. (가), (나)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윤리학은 각 문화권의 도덕적 관행을 경험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도덕적 관행의 발생에 관한 인과 관계를 객관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 (나) 윤리학은 ‘해야 한다’, ‘해서는 안 된다’와 같은 규범적 판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현실의 도덕 문제를 해결을 위한 도덕 이론을 정립해야 한다.

- ① (가): 윤리학이 학문으로 성립 가능한지를 탐구하는 것이다.
 ② (가): 도덕 명제에 사용되는 언어의 의미를 규명하는 것이다.
 ③ (나): 행위의 선악을 판단하는 도덕 원리를 제시하는 것이다.
 ④ (나): 도덕 추론의 타당성을 가치중립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⑤ (가)와 (나): 도덕적 관행의 개선을 위한 실천적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 나무가 가득했던 산이 벌목으로 민둥산이 되었다. 이와 같이 사람에게도 인의(仁義)의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양심을 놓아 잃어버렸을 뿐이다.
- 을: 큰 나무가 쓸모없다고 근심할 것이 아니다. 아무도 벌목하지 않으니 그 결을 유유자적하게 거닐면[逍遙] 된다. 도(道)의 관점에서 보면 사물에는 귀천의 구별이 없다.

- ① 갑: 백성은 항산(恒産)이 없어도 항심(恒心)을 가질 수 있다.
 ② 갑: 차별 없는 사랑[兼愛]을 베풀어야 인의를 회복할 수 있다.
 ③ 을: 인위에 얽매이지 않아야 정신적인 자유를 실현할 수 있다.
 ④ 을: 감각으로 인식한 도를 따를 때 이상적 인간이 될 수 있다.
 ⑤ 갑과 을: 지식을 쌓아서 시비(是非)를 명확히 분별해야 한다.

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시민 불복종은 정치권력을 가진 다수자에게 제시된다는 의미에서뿐 아니라 정의의 원칙에 의해 정당화된다는 의미에서 정치적 행위이다. 시민 불복종은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에만 기초할 수 없으며, 공유된 정의관에 의거하게 된다.

< 보 기 >

- ㄱ. 시민 불복종은 정치 체제의 효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약될 수 없다.
 ㄴ. 시민 불복종은 위법한 행위이지만 입헌 체제를 안정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
 ㄷ. 시민 불복종을 통해 다수자에게 소수자의 요구를 숙고하도록 촉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ㄹ. 시민 불복종에 따른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의지에 의해 법에 대한 충실성이 표현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 성관계는 성인 간의 자발적 동의를 전제로 상호 피해를 주지 않을 때 도덕적으로 정당화됩니다. 이러한 조건 외에 성관계의 도덕적 정당화에 필요한 제약은 없습니다.
- 을: 성관계에서 자율성의 원칙과 해악 금지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성관계는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결혼한 부부간에만 도덕적으로 정당화됩니다.
- 갑: 물론 성관계는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혼의 성인들도 그러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결혼을 조건으로 성관계를 제약하는 것은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입니다.
- 을: 성관계는 단지 사적 자유의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안정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다하기 어려우며 이는 사회의 안정성을 위협합니다.

- ① 개인이 지니는 성적 자유는 제한 없이 보장되어야 하는가?
 ② 성관계로 인하여 출산과 양육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가?
 ③ 부부 사이의 성관계만이 도덕적 가치 판단의 대상이 되는가?
 ④ 자발적 동의는 성관계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인가?
 ⑤ 결혼은 성관계의 도덕적 정당화를 위해서 요구되는 조건인가?

5.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우리는 어떤 준칙을 다른 사람들에게 규정적으로 명령하는 대신에, 그 준칙이 일반 법칙으로서 보편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다른 사람들과 논의해야 합니다. 나는 이러한 상호 작용을 의사소통적이라 부르며, 도달한 합의에 대한 타당성 주장은 상호 주관적 인정에 따라 평가됩니다. 이때 모든 담론 참여자가 합의한 규범만이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합의된 규범은 담론 참여자 모두가 강제 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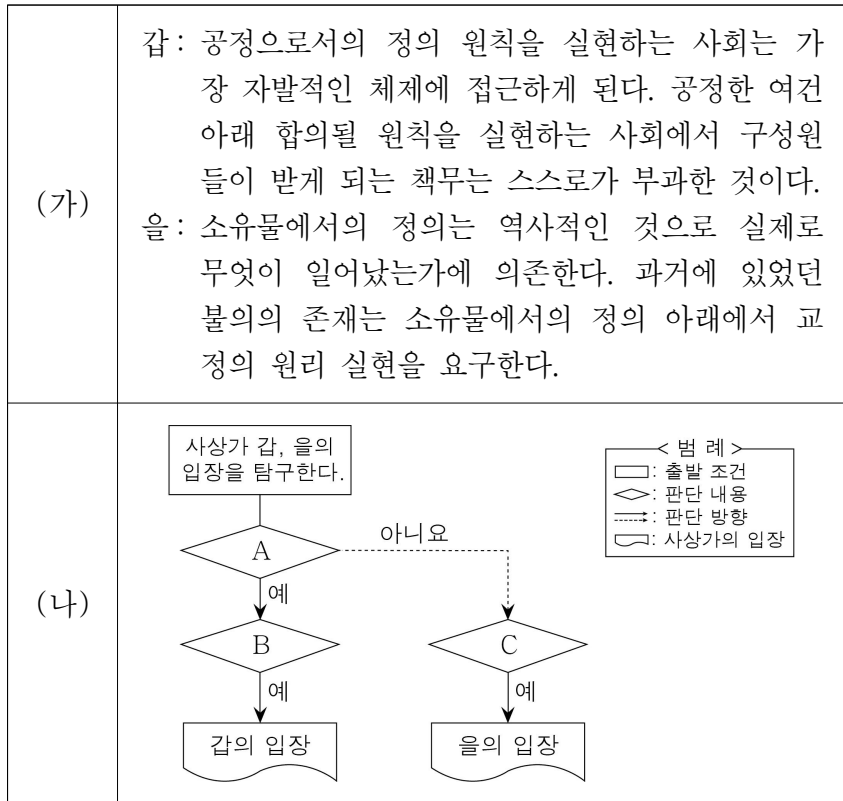


< 보 기 >

- ㄱ. 규범의 보편성은 논의 과정을 거친 합의에 의해 확보될 수 있다.
 ㄴ. 타당한 규범은 담론 참여자 중 다수가 동의한 경우에만 도출된다.
 ㄷ. 담론은 참여자의 자율성에 대한 존중심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ㄹ. 담론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담론 참여자는 주관적 의견 제시를 지양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6.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 ~ 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 보 기 >
- ㄱ. A: 기본권의 차등적 분배는 사회적 불평등 완화를 목적으로 할 때만 정당화되는가?
- ㄴ. B: 정의의 원칙은 사회 내의 기본 구조에 대한 모든 합의를 규제해야 하는가?
- ㄷ. B: 공정한 최초의 상황에서 타인의 이익에 무관심한 인격은 정의의 원칙에 합의할 수 있는가?
- ㄹ. C: 정형적인 분배 원리는 필연적으로 재분배를 초래하여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는 부를 생산할수록 더 가난해지고, 상품을 많이 만들수록 자신은 더 값싼 상품이 된다. 소외된 노동은 인간으로부터 그의 본질을 소외시킨다.

을: 국가 안의 성향이 다른 세 계층이 저마다 제 일을 한다면 올바른 국가가 되는 것처럼, 개인의 영혼 안에 있는 부분들이 각자 제 일을 한다면 올바른 사람이 된다.

- ① 갑: 생산 수단의 공유는 노동의 본질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 ② 갑: 진정한 노동은 노동자 자신을 상품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 ③ 을: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어야 한다.
- ④ 을: 정의로운 국가에서 서로 다른 계층 간의 간섭은 허용된다.
- ⑤ 갑과 을: 계층 간 역할 교환 없이는 이상 사회가 실현될 수 없다.

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의 온갖 특권에도 불구하고 재산 보존을 위해 스스로를 정부의 지배하에 두기로 한다. 여기서 우리는 입법권과 행정권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을: 인간은 본래 자유를 사랑하고 타인을 지배하기를 좋아한다. 하지만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 전쟁 상태인 자연 상태를 벗어나 국가 안에서 스스로를 구속하기로 한다.

- ① 갑: 최고 권력인 입법권에 대한 제한이 정당한 경우는 없다.
- ② 갑: 모두가 처벌권을 지니는 것이 재산권 보장의 최선책이다.
- ③ 을: 주권자에게는 자연법을 준수할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 ④ 을: 평화와 안전을 목적으로 인위적 인격인 국가가 수립된다.
- ⑤ 갑과 을: 절대 권력하에서는 전쟁 상태의 발생이 불가능하다.

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현자(賢者)는 삶의 중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며, 죽음이 오면 우리는 이미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을: 죽음은 현존재가 존재하자마자 받아들이는 하나의 존재 방식이다. 현존재의 종말로서 죽음은 현존재의 가장 독자적이고, 확실하며, 건너될 수 없는 가능성이다.

- ① 갑: 죽음은 감각의 상실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에게 고통이다.
- ② 갑: 죽음의 불가피성이 죽음 자체를 악으로 만들지는 못한다.
- ③ 을: 죽음의 불안을 극복한 현존재는 불멸의 가능성을 얻는다.
- ④ 을: 죽음을 직시한 인간은 내세에서야 비로소 실존을 회복한다.
- ⑤ 갑과 을: 죽음을 예견한 존재가 행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10.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갑: 법정의 심판대 앞에서는 오직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공적 정의가 원리와 표준으로 삼는 것은 어느 쪽으로도 더 기울지 않는 동등성의 원리이다.

을: 법에 복종하는 국민이 그 법의 제정자이어야 한다. 범죄자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 조국에 대한 반역자이자 배신자가 된다. 그러므로 범죄자는 시민이라기보다는 적으로 간주되어 처벌받는 것이다.

- ① 갑: 살인자도 생득적 인격성을 지니므로 수단으로서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 ② 갑: 사형받아야 할 행위를 의욕한 살인자에 대한 사형은 공적 정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 ③ 을: 사회 계약에 근거할 때 살인자는 자신이 살인을 저지른 국가에서 존립할 수 없다.
- ④ 을: 자기 보존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인간은 사형제가 사회 계약의 목적에 부합함을 안다.
- ⑤ 갑과 을: 시민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에게 부과될 수 있는 형벌은 오직 사형뿐이다.

11.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현대 기술은 인간의 힘이 자연에 미치는 범위와 인간 세계 자체에 양적, 질적 변화를 가져왔다. 기술의 시대에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도덕 철학은 희망보다는 공포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 < 보 기 >
- ㄱ. 자연에 대한 인간의 책임과는 다르게 인간 간의 책임은 호혜적일 수 있다.
 - ㄴ. 기술에 대한 평가는 활용 결과를 배제하고 개발 의도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ㄷ. 기술을 가치중립적으로 바라보지 않고서는 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악을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ㄹ. 미래 세대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 의무는 미래 세대가 존속되어야 한다는 정언 명령에 예속되어 있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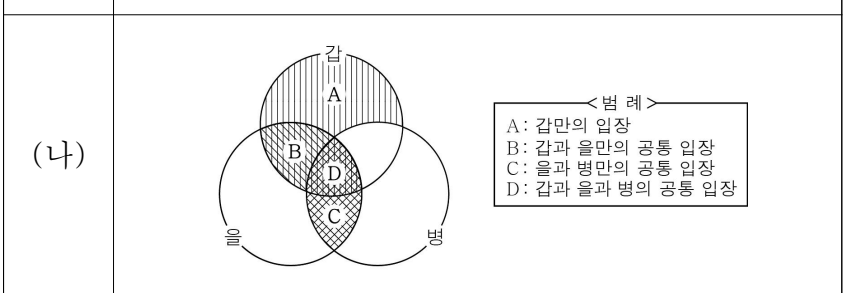
12.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동물은 자의식이 없으므로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동물과 관련한 우리의 의무는 인간이 자신에 대해 지니는 의무에 불과하다.

을: 삶의 주체인 동물이 뜻하지 않게 죽는 것은 그 동물에게 해악이다. 실험실에서 일어나는 동물의 죽음을 도덕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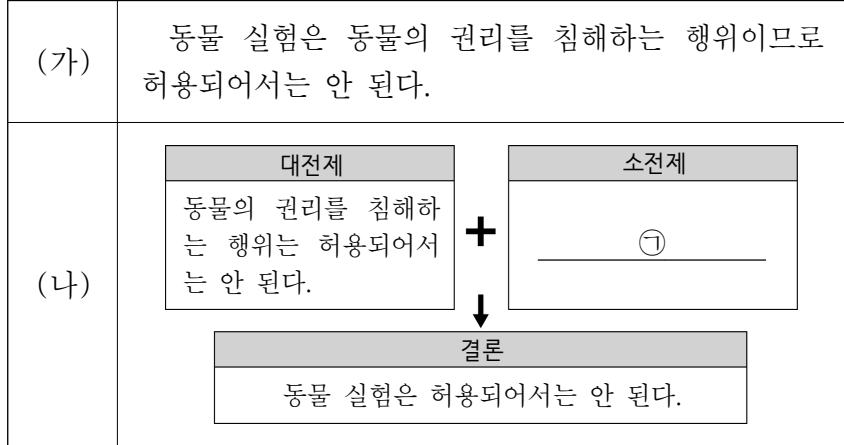
병: 인간과 마찬가지로 서커스 동물, 실험용 동물도 각각 자신의 방식으로 고유의 선을 추구하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 < 보 기 >
- ㄱ. A: 인간이 아닌 생명체를 잔학하게 다루면 안 되는 이유는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에서만 도출된다.
 - ㄴ. B: 수단으로만 대우받아서 안 되는 존재라면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다.
 - ㄷ. C: 인간이 아닌 도덕적으로 무능력한 존재가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 ㄹ. D: 인간의 가치 평가로부터 독립된 가치를 지닌 개체라면 그 개체의 행위는 도덕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3. (가)의 주장을 (나) 그림으로 나타낼 때, ㉠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동물 실험은 실험 대상이 되는 동물의 생명을 해친다.
- ② 동물은 이익 관심을 지니므로 실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③ 동물과 인간은 각자의 선을 추구하는 동등한 존재이다.
- ④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 존재한다.
- ⑤ 동물은 자율성이 없으므로 권리를 지닌 존재일 수 없다.

14.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종교적 관점에서 우주는 암호가 된다. 종교적 인간에게는 식물의 리듬 속에서 생명과 창조의 신비, 청춘과 불사의 신비가 계시된다. 성스러운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수목은 식물의 모범적 형상인 원형을 구현하고 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특권적인 지위를 얻게 된 것이다.

- < 보 기 >
- ㄱ.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은 현실에서 공존할 수 없다.
 - ㄴ.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사물은 그 자체로 초월적인 신이다.
 - ㄷ. 종교적 인간은 사물을 통해 드러나는 성스러움을 숭배한다.
 - ㄹ. 사물의 특수한 양식으로 성스러움의 양태가 제시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지시해 주는 것은 오직 고통과 쾌락뿐이다. 공동체의 행복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감소시키는 경향보다 클 경우 공리의 원칙에 일치한다.

<문제 상황>

오케스트라 단장 A는 뛰어난 실력에도 불구하고 단원들과의 불화로 오케스트라를 떠났던 연주자를 재영입하고자 한다. 그런데 대다수의 단원들이 이를 반대하여 고민 중이다.

- ① 자기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연주자 재영입을 결정하세요.
- ② 단원들의 의사가 아니라 단장의 권위를 중시하여 결정하세요.
- ③ 오케스트라 전체에 가져올 손익의 총합을 계산하여 결정하세요.
- ④ 다수 의견이 항상 옳으므로 단원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세요.
- ⑤ 그 자체로 선한 행위가 무엇인지 신중히 고민하여 결정하세요.

1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평화 상태는 국가 상호 간의 계약 없이는 보장될 수 없다. 각국의 자유와 영원한 평화 실현을 목표로 하는 평화 연맹이 필요하다.

을: 이익 공동체도 세력 균형도 없는 곳에서는 국제법이 존재할 수 없다. 각국은 자국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국제법을 해석하고 적용한다.

- ① 갑: 평화 연맹은 주권국의 입법권을 위임받아 행사해야 한다.
- ② 갑: 평화 연맹은 개별 국가를 국제법에 강제로 복종시켜야 한다.
- ③ 을: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의 본질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 ④ 을: 세력 균형을 도모하는 군비 경쟁은 전쟁을 유발할 수 있다.
- ⑤ 갑과 을: 평화 실현을 위한 각국의 무력행사는 항상 정당하다.

17. 다음 칼럼의 입장에서 지지할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00신문 0000년 00월 00일

칼럼

지식 검색의 기능을 넘어 일상적 대화를 나누는 친구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은 매력적인 존재이다. 하지만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사용자의 깊이 있는 사고를 방해한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이 보내는 지지에 익숙해지면 사용자는 자신이 항상 옳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으며, 생성형 인공지능과의 소통에 지나치게 몰입하면 인간관계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그렇다고 생성형 인공지능을 무작정 거부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다. 사용자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도구로도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야 한다.

- ①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 시 사용자의 반성적 태도가 요구된다.
- ② 생성형 인공지능이 현실의 인간관계를 대체하도록 해야 한다.
- ③ 생성형 인공지능을 수단이 아닌 목적적 존재로 간주해야 한다.
- ④ 생성형 인공지능의 기능은 정보를 탐색하는 것에만 한정된다.
- ⑤ 생성형 인공지능은 유해하므로 사용이 전면 금지되어야 한다.

18. (가), (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패스트패션은 최신 유행에 따른 옷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생산 방식으로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해 주지만, 막대한 양의 탄소를 배출해 기후 변화를 가속화하는 문제를 지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패스트패션 제품 생산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필수적이다.

(나) 패스트패션 제품 생산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실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소비자가 윤리적 신념에 따라 슬로패션 운동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가치 소비를 실천하여 패스트패션이 초래하는 기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① (가): 패스트패션의 확산은 소비자의 욕구 충족을 방해한다.
- ② (가): 의복의 생산 방식은 제도적 규제 없이 개선되어야 한다.
- ③ (나): 소비에 대한 성찰은 기후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 ④ (나): 패스트패션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어떠한 효과도 없다.
- ⑤ (가)와 (나): 소비 행위의 가치는 경제적 효용만으로 평가된다.

1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자신의 문제들을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서 질서 정연한 국제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질서 정연한 만민은 고통받는 사회를 원조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을: 도덕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중요한 다른 일을 희생하지 않고 막을 수 있는 극단적인 빈곤이 있다면, 그러한 빈곤은 마땅히 막아야만 한다. 이러한 원조의 책무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

- ① 갑: 원조 대상의 빈곤이 해소되어야만 원조 중단이 가능하다.
- ② 갑: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는 데 필요한 부의 정도는 사회마다 다를 수 있다.
- ③ 을: 개인 간 부의 불균등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원조는 의무로 규정된다.
- ④ 을: 원조 대상이 처한 정치적 상황 때문에 원조 의무 이행이 유보되는 경우는 없다.
- ⑤ 갑과 을: 원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원조 대상에 대한 강제력 행사는 정당화된다.

20.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아름다운 것은 동물적이면서도 이성적 존재인 인간에게만 타당하며 다른 모든 인간의 동의를 요구한다. 미적인 것은 윤리적으로 선한 것의 상징이다.

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모방된 것에 쾌감을 느낀다. 시인의 임무는 실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개연성 있게 모방하여 창작하는 것이다.

< 보 기 >

- ㄱ. 갑: 미적 판단은 일체의 이해 관심 없이 내려질 수 있다.
- ㄴ. 갑: 미적 판단과 도덕 판단 모두 보편성을 지닐 수 있다.
- ㄷ. 을: 과거 사실의 재현은 시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아니다.
- ㄹ. 갑과 을: 인간 본성을 극복해야만 미적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